

##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 개발과 적용\*

조 계 화<sup>1)</sup> · 이 현 지<sup>2)</sup> · 이 윤 주<sup>3)</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은 삶을 종결짓는 사건으로서 출생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시되거나 부정당하고 회피되는 모순적인 대상이다. 생애 발달주기에서 후기 청소년기는 죽음에 대한 명확한 관념을 갖는 시기이므로 죽음에 대한 관심과 불안이 생겨나고 죽음에 직면하여 분리불안과 단절의 공포, 우정의 상실과 새로 획득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공포를 갖는다고 한다(Hur, 1999).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대학 교육은 본질적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를 지향하는 창조적 활동이므로, 삶과 죽음을 인간 경험의 총체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죽음교육을 통해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성 구축의 바탕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21세기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대학교육은 전통적 수업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혁신적 방법인 사이버 교수-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먼대면 수업에서 학생은 수업의 객체인 반면 웹 기반 교육에서는 학습자의 역할이 증대되어 학생의 주도적 수업상황이 창출되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의 탈피와 최신정보의 용이성, 교수-학습자간의 폭넓은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최신기술의 도입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교육은 학습자의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식 자체를 가르치는 교훈적 수업보다는 창조적이고 체험적인 수업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Hong, 2002).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반 교육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가 끌리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자기화,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여 교육이 학생의 삶에 의미를 주도록 하였다.

죽음의 문제는 곧 삶의 문제인 동시에 인간 본질에 관한 문제제기이다. 교육이 삶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면, 교육의 범위와 내용 속에 ‘죽음’이라는 영역을 포함시킬 때 진정으로 건강한 교육이 될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각자의 삶을 진지하게 사유하고, 가치를 창조하여 죽음을 대하는 인성적 자질을 배양하고 나아가 사회병리와 그것의 치유를 위해 죽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은 현대의학이나 과학의 발달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자기성취에 큰 비중을 두고 있어 죽음이라는 문제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Jo, Lee, & Lee, 2006). 또한 성인초기의 발달단계에 해당되는 젊은 학생으로서는 삶과 죽음에 관한 지식과 체험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학문적 대책과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죽음에 관한 교육의 부재는 결과적으로 통합된 인간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것을 의

주요어 : 학생, 죽음, 태도, 교육, 자기개념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6-E00006)

1) 대구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2) 대구가톨릭대학교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3)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수

투고일: 2007년 2월 7일 심사완료일: 2007년 4월 13일

미하며 이런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길러내지 못한다.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 보편적이며 필연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였으나 최근 죽음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죽음 현상을 둘러싼 연구 활동이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 간호학 분야 연구에서는 죽음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질문지법과 면담법을 이용하였으며(Lee, 2001; Kim & Lim, 2002), 죽음학 교과내용의 평가도구는 개발되어 있으나(Jo et al., 2006)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죽음학을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 드문 실정이다.

죽음에 관한 국외 연구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죽음에 관한 태도와 요인을 밝혀 교육과정개발로 연결시킨 연구(Matzo et al., 2003)와 간호사와 학생들에게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파악하여 불안감 저하와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등을 보인 연구(Mallory, 2003)가 있다. 또 다른 연구(Kao & Lusk, 1997)에서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지각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서구의 죽음교육 관련 내용과 프로그램을 동양의 문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양 문화권에 죽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의 국내외 죽음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죽음교육에 관한 필요성과 인지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효과적인 방법이 덜 개발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교육적 요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효율적 교육 환경 조성과 우리 문화에 적합한 죽음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개발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 즉 핵가족의 증가로 인한 가정에서의 죽음학습 부재, 현대의료에 있어 인간의 소외화, 의학의 발달로 인한 죽음정의의 혼란, 인구의 고령화, 질병구조와 죽음유형의 변화, 진정한 웰빙의 추구 등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다각도에서 조명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죽음에 관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하여 삶을 강화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배양하기위해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이란 교과목을 사이버 강좌로 개발하여 적용한 후 그 효과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를 개발하여 실시 한 후, 대학생들의 죽음에 관련된 태도 및 지식을 수업 전과 후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에 등록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

펴본다.

-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 전후에 따른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를 파악한다.
-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 전후에 따른 대학생의 죽음태도의 변화를 파악한다.
-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 전후에 따른 대학생의 자기개념의 변화를 파악한다.
-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에 등록한 대학생의 죽음강좌에 관한 평가를 살펴본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기존연구(Jo et al., 2006)에서 개발된 죽음교육 교과내용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상강좌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를 실시한 후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죽음강좌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였다. 또한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일군 전·후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죽음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도, 죽음태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2006년 2학기 K 사이버 대학 콘소시움에서 개설한 교양과목인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을 수강한 남녀 대학생 171명에게 연구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참여에 동의한 16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 사후조사에서 설문내용의 누락으로 9명이 탈락되어, H대학교 학생 40명, B대학교 학생 16명, C대학교 학생 98명으로 총 1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가상강좌 도구개발

-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 개발

본 연구의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는 교과내용과 교수법에 관한 모델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우선 본 연구의 죽음에 대한 강좌내용 개발은 미국의 End of 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ELNEC, 2000)에서 제시한 임종간호와 휴먼 서비스 학문 영역의 죽음학에 관한 연구(Downe-Wamboldt & Tamlyn, 1997)에서 도출된 이슈들과 Imogie(2000), Wass(2003), DeSpelder와 Strickland (2002)의 연구에서 제시된 죽음 관련 개념을 근거로 Jo 등(2006)이 제시한 죽음학 교과내용을 참조하였다<Table 1>.

&lt;Table 1&gt; Attributes of contents in death education

Attribute	Themes
Learning about death	Grief, loss, bereavement / pain & symptom management(ELNEC, 2000). Loss/grief, bereavement & pain / symptom control(Downe-Wamboldt & Tamlyn, 1997). What is death / socio-economic implication (Imogie, 2000). Facing death / the experience of loss (DeSpelder & Strickland, 2002).
Role of professional	Role of health professionals (Downe-Wamboldt & Tamlyn, 1997) Nursing care at the end of life (ELNEC, 2000). Preparing to cope with death (Imogie, 2000). Health care system (DeSpelder & Strickland, 2002).
Personal attitudes	Preparation and care for the time of death(ELNEC, 2000) Death anxiety (Downe-Wamboldt & Tamlyn, 1997). Cause of death (Imogie, 2000). Attitudes toward death (DeSpelder & Strickland, 2002).
Hospice and support	Communication (ELNEC, 2000). Hospice movement (Downe-Wamboldt & Tamlyn, 1997). Effect of death and dying on immediate relations (Imogie, 2000). Survivors (DeSpelder & Strickland, 2002).
Ethical/medical/ legal issues	Ethical / legal issues (ELNEC, 2000). Ethical / legal issues (Downe-Wamboldt & Tamlyn, 1997). Medical ethics / the law and death (DeSpelder & Strickland, 2002).
Death & dying	Difference between death and dying (Imogie, 2000). The value of exploring death and dying (DeSpelder & Strickland, 2002).
Spiritual issues	Achieving quality care (ELNEC, 2000) Spiritual issues (Downe-Wamboldt & Tamlyn, 1997) Life after death (Imogie, 2000). Beyond death / after life (DeSpelder & Strickland, 2002).
Cultural diversity	Cultural considerations (ELNEC, 2000). Cultural diversity (Downe-Wamboldt & Tamlyn, 1997). Social & cultural differences (Imogie, 2000). Cross-cultur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n death (DeSpelder & Strickland, 2002).
Theories to death	Different types of death & stage of dying process (Imogie, 2000). Theoretical perspectives (DeSpelder & Strickland, 2002).

본 강좌는 올바른 죽음관 형성과 건강한 삶의 유지,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죽음관련 사건들에 대한 대처행동을 강화 시키는데 목표를 두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는 Tyler의 제안에 따라 철학적, 사회적, 심리.상당적, 의료.법적, 건강교육 접근방법을 포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학생들에게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철학을 개발하도록 격려하여 삶에 대한 이해와 가치, 우선순위와 목표설정에 핵심적 요소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집단으로서 문화가 죽음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탐구하고 임종자와 비탄에 잠긴 유족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학설을 소개하였다. 또한 죽음의 정의와 유산집행에 직면한 법적.의료적 책임, 그리고 건강교육접근법을 통해 인간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수법은 1948년 Tyler가 개발한 죽음교육 교과과정에 관한 기초모델을 토대로 Lee, Jo와 Lee(2006)에 의해 제시된 죽음 교육모형을 개념적 틀로 하여 상기 Jo 등(2006)이 제시한 죽음학 교과내용을 영역별로 재구성하여 16주간의 ‘성공적인 삶

과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를 개발하였다<Table 2>. 구체적으로, Tyler의 모델을 근거로 죽음교육 교과과정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학생, 전문가, 지역사회 대표로 구분하였으며, 교육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태도와 지식, 욕구를 측정하여 교과과정의 틀을 구성하는 요건으로 대상의 수준에 따른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교재와 내용을 참조하였으며, Lee 등 (2006)이 제시한 죽음교육모형에서는 인지, 정서, 실천 및 행동을 주요소로 한 교육의 각 측면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수업 전략을 상기 제시된 교과내용을 재구성하여 가상강좌를 개발하였다.

-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 적용
- 사전조사

강좌 시작 첫 주에 사전조사로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함께 죽음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도,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가상공간 과제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실험처치

2006년 9월 1일부터 2006년 12월 20일까지 가상강좌를 운영하였다. 가상강좌는 16주간 이루어졌으며 8주와 16주에는 가상공간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였다. 매주 PPT를 이용한 30-40분짜리 동영상 강의와 강의보조로 5-10분간 영화나 그림, 인터넷 사이트 첨부자료를 수강하도록 하였다. 매주 강의는 온라인으로 2주간 개방되어있어서 학생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면 자동적으로 출석이 체크되며, 매주 제시된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여 학생의 주도적 학습을 권유하였다. 제출된 과제는 즉시 피드백하여 교수와 학생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외에도 질의응답, 공지사항, 자유게시판을 활용하여 학생과 교수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자유토론을 하도록 구

성하였다.

- 사후조사

강좌 마지막 주에는 사후조사로서 사전조사에서 사용한 동일한 도구들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가상강좌 전반에 관한 평가문항을 첨부하여 가상강좌 과제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연구도구

-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상강좌는 죽음교육에 관한 강좌로 Tyler(1948)의 죽음교육 교과과정모델과 Lee등(2006)이 제시한 죽음교육모형을 근거로 여러 학자가 제시한 죽음교육 교과내

<Table 2> Death education program

	Subjects	Objective	Contents	Assignment
1	Orientation	To introduce the plans and assignments of the course	Introduction of the course	Pre-survey on successful life and beautiful death
2	What is death?	To review the meaning/definition of the death	The definition and the decision procedure of the death	Pick one of artistic works of death and discuss about it
3	Death in history and society	To acknowledge different faith and meaning of death in cross cultures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understanding on death	Discuss one of cultural issues related to death
4	Religion	To understand different perspectives of death from each religion	Perspectives of death from various religions	A paper about how to live 'death'
5	Dying process	To learn the process of conceiving death and considerate perspective on death	The process of death, loss, grief Healthy/unhealthy grief	Personal experience of dying process or perspectives of dying
6	The dying person	To learn the way of helping and understanding the dying	Who are the dying What the dying need Difficulties of the dying	Write up meaning of death from the dying
7	The bereaved person	To learn the way of helping and understanding the bereaved.	Who are the bereaved? What the bereaved need? The bereaved adaptation	Write up meaning of death from the living
8	Mid-term	Exam		
9	Hospice	To learn about hospice and the support of health system	Hospice history Hospice type and service Condition of hospice	Write about hospice system and medical system
10	Funerals and rites	To learn about meanings of funerals in relation to the society	Types of funerals Meaning of funerals and rites in different societies	Find out different types of funerals
11	Death based on life cycle	To acknowledge death on one's life cycle	Death on children, adolescents, & adulthood Death on elderly	Discuss death in one of life cycle
12	Type of death	To learn the contemporary crisis related to death	Involuntary death Voluntary death	Write about personal response on committing suicide
13	Medical/ethical issues	To introduce various medical/ethical issues	Ethical issues such as euthanasia/transplantation Legal issues	Choose one of ethical issues related to human death
14	Spiritual issues	To understand afterlife and meanings of death	What is spiritual? Perspectives of afterlife	Write up personal experience of spiritual issues
15	Death and life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death and life	Implications of death and related theories	Post-survey of the attitudes toward successful life and beautiful death
16	Final	Exam		

용(Downe-Wamboldt & Tamlyn, 1997; ELNEC, 2000; Imogie, 2000; DeSpelder & Strickland, 2002; Wass, 2003; Jo et al., 2006)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는 동영상강의, 교과내용, 교재, 토론, 과제, 시험,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6주 동안 웹사이트 <http://consortium.kcu.or.kr>에서 운영되었다.

학습내용은 본 연구자들이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죽음교육 욕구조사와 죽음교육에 관한 문헌고찰(ELNEC, 2000; Wass, 2003; Lee et al., 2006; Jo et al., 2006)을 통하여 내용의 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텍스트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학습내용은 전문가 4인(간호학교수, 사회복지학교수, 교육학교수, 윤리학교수)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쳤다. 전체적으로 인지적, 정의적, 실천 및 행동 측면의 3가지 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인지적 측면에서는 죽음의 이해와 환경이해, 정의적 측면에서는 태도정립과 정서작업, 그리고 실천 및 행동 측면에서는 임종자 조력, 사별자 조력, 자살예방의 7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16주간의 구체적인 죽음교육내용은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주별로 학습목표와 내용 및 과제가 제시되어있고 실제 강의와 유사한 효과가 있도록 PPT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와 보조자료를 제공하며 매주 과제물 제출과 가상토론을 유도하였다.

제출된 과제는 즉시 점수와 함께 간단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토론은 질의응답란을 이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올리고 다른학생들의 견해에 답글을 다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가상강좌에서 제시한 과제와 토론 주제는 예술작품을 통한 죽음의 정의와 태도, 종교와 문화를 통한 죽음학습, 대체요법, 죽음에 임박한 증상들, 슬픔과 사별 지지, 장례계획과 유언장, 상실경험에 대한 반응과 학습의 회상, 자살에 대한 개인적 반응, 생명유지장치의 사용, 사후세계의 관점 등이다.

과제 중 학생들의 질문 빈도가 높은 부분은 공지사향이나 질의응답란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며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학습의 성취도를 높였다. 학습관련 보조자료로는 비디오 오디오테이프, 그림, 텍스트,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제공하여 동영상 강의로 학습한 내용과 연관하여 강의의 이해에 도움을 주며 자료를 보충하였다.

#### ● 죽음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도

죽음교육 교과내용 만족도는 휴먼서비스 전문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죽음교육 교과내용 평가를 위해 Jo 등(2006)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죽음교육 교과내용 평가 도구는 9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 전문가의 역할, 죽음에 대한 개인적 태도, 호스피스와 지지, 윤리적 의학적 법적 이슈, 죽음과 임사, 영적 이슈, 죽음의 교차문화적 이해, 죽음에 관한 이론으로 총 44

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개설한 죽음교육 가상강좌는 휴먼서비스 전공분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아니라 대학의 일반교양 수준에 초점을 둔 온라인 강좌이므로 전문가의 역할과 관련된 문항을 제외한 후 3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매우 강한 부정’ 1점에서 ‘매우 강한 긍정’ 5점까지의 Likert 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3$  이었다.

#### ● 죽음태도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1969년 Collett-Lester가 개발한 FODS(Fear of Death Scale)을 토대로 Chung(1992)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태도 문항은 역산으로 처리하여 합산하였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42$ 였다.

#### ● 자아개념

개인의 자아에 대한 개념은 1965년 Rosenberg가 개발한 척도를 Jeon(197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도구는 긍정적 자아개념 5문항과 부정적 자아개념 5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식 4점 척도이다.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3$ 이었다.

#### ● 죽음교육 강좌에 대한 평가

죽음교육 강좌에 대한 평가는 죽음교육 교과내용 평가도구(Jo et al., 2006)와 Knowles(1978)의 학습조건에 대한 9가지 영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죽음 강좌에 대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하위영역은 크게 죽음교육 학습내용에 대한 평가 5문항, 학습전략에 대한 평가 5문항,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 5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항목은 매우강한부정 1점에서 매우강한긍정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강좌의 평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

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죽음 강좌에 대한 만족도는 빈도 및 백분율을 통한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가상강좌 수강 전 후의 죽음 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도와 죽음에 대한 태도, 자아 개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는 평균 24.5세로 20-24세가 80명(5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5-29세가 69명(44.8%), 30세가 3명(1.9%), 40세가 2명(1.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 대학생 56.4%, 여자 대학생 43.5%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으며, 전공은 공대분야가 37명(23.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상대학, 항공 관련학과 등 그 외에 다양한 전공으로 나타났다. 죽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이나 교육에 관해서는 주변인의 죽음으로 인한 개인적 경험이 96명(62.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죽음에 관한 강의와 교육과정 내 죽음으로 인한 상실에 관한 내용을 접한 경우가 각각 10.4%로 나타났으며, 노년에 관한 교육과정을 수강한 경우가 10.4%, 호스피스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0.6%, 기타가 6.5%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Age (years)	20-24	80(51.9)
	25-29	69(44.8)
	30	3( 1.9)
	40	2( 1.2)
Gender	Male	87(56.4)
	Female	67(43.5)
Major	Engineer related area	37(23.9)
	Business related	25(16.1)
	Flight related areas	20(12.9)
	Social science related	19(12.2)
	Music & art related areas	18(11.6)
	Literature arts	17(11.0)
	Law related areas	13( 8.4)
	Health related areas	5( 3.2)
Educational experience of death	Grief / death related courses	16(10.4)
	Loss / death related courses	16(10.4)
	Aging related courses	15( 9.7)
	Hospice courses	1( 0.6)
	Personal experience of death	96(62.3)
	Others	10( 6.5)

### 죽음교육 전후의 죽음개념에 관한 인지도의 변화정도

죽음에 대한 강좌 전후 조사대상자들의 죽음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사전 개념 인지도 2.62에서 사후 개념 인지도 3.70( $t=-14.232$ ,  $p<.001$ )으로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죽음과 관련된 개념의 하부영역인 죽음에 대한 이해( $t=-13.886$ ,  $p<.001$ ), 개인적 태도( $t=-11.113$ ,  $p<.001$ ), 호스피스와 지지( $t=-13.606$ ,  $p<.001$ ), 윤리적, 법적 이슈( $t=-6.963$ ,  $p<.001$ ), 죽음과 임사( $t=-14.170$ ,  $p<.001$ ), 영적이슈( $t=-10.308$ ,  $p<.001$ ), 문화적 차이( $t=-12.598$ ,  $p<.001$ ), 이론( $t=-4.402$ ,  $p<.001$ ) 등 모든 하부영역에서 수강 전보다 수강 후에 죽음에 관련된 개념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of understanding concept of death' total score and subscale scores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Variables	Pre(N=154) M(SD)	Post(N=154) M(SD)	t	p
Total	2.62(0.54)	3.70(0.54)	-14.232	.000
Learning about death	2.77(0.62)	3.84(0.59)	-13.886	.000
Personal attitudes	2.81(0.65)	3.71(0.59)	-11.113	.000
Hospice & support	2.36(0.80)	3.62(0.71)	-13.606	.000
Ethical/legal issue	2.44(0.69)	3.00(0.61)	-6.963	.000
Death & dying	2.53(0.70)	3.74(0.60)	-14.170	.000
Spiritual issue	2.60(0.91)	3.56(0.86)	-10.308	.000
Cultural diversity	2.38(0.68)	3.46(0.67)	-12.598	.000
Theories	3.13(0.62)	3.76(0.69)	-4.402	.000

### 죽음교육 전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정도

죽음에 대한 강좌 전후 조사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전 죽음 태도 3.48에서 사후 죽음태도 3.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 $t=-3.892$ ,  $p<.001$ )가 나타났다. 죽음에 대한 태도의 하부영역인 긍정적 태도( $t=-4.092$ ,  $p<.001$ )와 부정적 태도( $t=-4.043$ ,  $p<.001$ ) 역시 수강 후 수강 전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Differences of attitudes toward death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Variables	Pre(N=154) M(SD)	Post(N=154) M(SD)	t	p
Attitudes toward death	3.48(0.31)	3.56(0.34)	-3.892	.000
Positive attitudes	3.18(0.35)	3.35(0.39)	-4.092	.000
Negative attitudes	3.57(0.52)	3.75(0.52)	-4.043	.000

### 죽음교육 전후의 자아개념의 변화정도

죽음에 대한 강좌 전후 조사대상자들의 자신에 대한 태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paired t-test로 분석한 결과, 사전 자아개념 2.95에서 사후 자아개념 3.07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 $t=-3.304$ ,  $p=.001$ )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개념( $t=-7.794$ ,  $p<.001$ )과 부정적 자아개념( $t=-3.076$ ,  $p<.01$ ) 모두 수강 전과 수강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강 후 조사대상자들의 자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6>.

<Table 6> Differences of self-concept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Variables	Pre(N=154) M(SD)	Post(N=154) M(SD)	t	p
Self-esteem	2.95(0.50)	3.07(0.48)	-3.304	.001
Positive	2.75(0.62)	3.11(0.63)	-7.794	.000
Negative	2.99(0.47)	3.14(0.45)	-3.076	.003

### 죽음교육 강좌에 대한 평가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학습에 초점을 두었으며, 구체적으로 학습내용과 학습전략, 그리고 학습과정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Table 7>. 분석결과, 강좌에 대한 전체적 평가는 평균 3.93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을 살펴보면, 학습내용면은 평균 3.98, 학습과정은 3.80, 그리고 학습전략은 3.99로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습내용특성의 구체적 항목을 살펴보면, 죽음 관련 비탄과 슬픔에 관한 내용이 평균 4.09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죽음, 상실, 슬픔관련 이론

4.06점, 죽음에 대한 직면 3.96점, 죽음 관련 상실 3.95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통합이 3.82점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전략특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스스로 학습경험을 수행하는 것이 평균 4.33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스스로 학습경험을 계획하는 것에 4.12점, 표현의 자유가 4.01점, 적절한 학습 안내가 3.76, 그리고 적절한 참고자료가 3.7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습과정특성에 관한 항목을 살펴보면, 학습자간의 차이를 수용하는 것이 평균 3.92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상호간의 원조가 3.85점, 적절한 토론과 피드백이 3.76점, 학습과정의 능동적 참여가 3.75점, 그리고 상호 신뢰와 존경을 기본으로 한 학습 환경이 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의해 개발된 죽음교육 교과내용 및 프로그램을 근거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죽음”이라 불리는 죽음학 가상강좌를 개발하여 16주간 가상강좌를 운영한 후 강좌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후 변화와 연구대상자의 강좌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선행연구와 연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6.5%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개인적으로 주변인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죽음에 관련된 교육이나 교과과정 내에서 죽음에 관련된 이슈를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은 본 강좌가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의 절차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을 신청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본 가상강좌를 신청한 학생들의 대부분

<Table 7> Evaluation for the death education cyber class

Variables	Items	Mean	SD
Total learning		3.93	0.66
Learning contents (mean=3.98)	1. Death-related losses	3.95	0.83
	2. Death-related grief	4.09	0.79
	3. Death, loss, grief - related theories	4.06	0.80
	4. Confrontation of death	3.96	0.76
	5. Integration of death	3.82	0.77
Learning strategy (mean=3.99)	1. Planning one's own learning experience	4.12	0.84
	2. Implementing one's own learning experience	4.33	0.64
	3. Freedom of expression	4.01	0.78
	4. Proper references and data	3.73	0.79
	5. Proper learning guide	3.76	0.81
Learning process (mean=3.80)	1. Participating actively in learning process	3.75	0.85
	2. Learning environment based on mutual trust & respect	3.69	0.84
	3. Proper discussion and feedback	3.76	0.88
	4. Mutual helpfulness	3.85	0.84
	5. Acceptance of difference	3.92	0.71

은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죽음에 관련된 이슈에 관해 알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죽음에 관한 개인적 경험 또는 죽음관련 교육의 경험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교과목 효과성에 관한 기존연구(Kramer, 1998)에서 수강자의 대부분이 죽음을 개인적 측면이나 교육과정을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나타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조사대상자들의 죽음개념에 관한 인지도를 죽음학 가상강좌 수강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수강 전보다 수강 후에 죽음관련 개념에 관해 지각된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죽음관련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죽음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개인적 태도, 호스피스와 지지,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이슈, 죽음과 임사, 죽음과 관련된 영적 이슈, 죽음과 관련된 교차 문화적 이해, 죽음관련 이론 등 모든 영역에서 수강 후에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죽음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죽음과 죽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반응과 일련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에 초점을 둔 것으로, 기존의 죽음 교육 혹은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성과에 관한 연구(Downe-Wamboldt & Tamlyn, 1997; Kramer, 1998)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개인적 태도 및 호스피스와 지지는 중요한 타인이나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대처해야 하는 개인적 태도와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를 다루는 사회적 서비스 측면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죽음교육이 개인적 차원에서 죽음 상황에 대한 태도 및 대처능력과 호스피스 활동 및 환자과 남은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또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ed, 1987; Matzo et al., 2003). 한편, 죽음에 관련된 윤리적, 법적 이슈 및 영적 이슈는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과 삶의 질에 관한 내용으로, 본 연구결과 죽음교육이 인간의 존엄성과 본성에 대한 이해 및 존재성에 대한 의미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DeSpelder & Strickland, 2002)와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교차 문화적 이해, 죽음과 임사 그리고 죽음관련 이론에 관한 인지도의 유의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죽음교육이 죽음과 관련된 의사소통, 의사결정, 죽음관, 그리고 개인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요인들(Braun, Pietsch, & Blanchette, 2000)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죽음과 관련된 주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죽어가는 것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노출의 필요성(Coppola & Strohmets, 2002)을 지지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는

교육이 개인으로하여금 죽음에 직면하고 죽음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죽음태도를 가상강좌 전후로 살펴본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가 수강 전에 비해 수강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Cicirelli (2001)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인간의 죽음을 자아통합과 자아실현을 제공하는 사건으로 보고, 인생의 고통과 짐으로 부터의 해방과 개인적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는 긍정적 태도와 죽음이 개인의 삶을 방해하고 좌절을 가져오며 가족과 가까운 이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줌과 동시에 삶의 허무감을 극대화시키는 사건으로 여기는 부정적 태도로 보았다. 본 연구결과, 죽음학 가상강좌 후 조사대상자들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유의하게 높아진 반면, 부정적 태도는 유의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죽음에 관한 공식적 교육이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즉 죽음교육은 개인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며, 삶의 완성으로 다음세대로 이양되는 자연스럽고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도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죽음이 인간의 삶의 좌절이나 실패를 의미한다는 개인적 시각을 완화시킴으로써, 개인이 죽음을 수용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죽음교육은 죽음에 관련된 개념들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으로써, 죽음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죽음학 강좌전후 대학생의 자기 개념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수강 전보다 수강 후에 자기개념에 대한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 모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교육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개인이 죽음의 의미를 내면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유한성을 의미하는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재정립하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삶의 특수성을 실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즉 죽음에 대한 개인적 시각은 개인의 자기개념과 인생관, 세계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죽음사건에 대한 반응 및 죽음준비 방법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Cicirelli, 2001), 죽음교육을 통한 죽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개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자기개념 및 세계관의 변화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죽음교육이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기존의 여러 연구(Chung, 2003; DeSpelder & Strickland, 2002)에서 제시되었으



며, 이러한 측면에서 죽음교육은 궁극적으로 삶을 더욱 생산적으로 살아가게 하며 인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Chung, 2003; Kubler-Ross, 1970).

마지막으로, 죽음학 가상강좌에 대한 학습자의 평가결과는 전체만족도가 5점 만점에 3.93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기존 연구(Park, Kwon, & Lee, 2006; Kim & Choi, 2003)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 가상강좌 평가내용을 하부영역별로 살펴보면, 학습전략이 3.99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학습자 스스로 학습경험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4.12, 4.33점으로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내용면에서도 3.98점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며,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이론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가상강좌는 학습자 스스로 학습목표를 계획하고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수행평가 적용과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하도록 하여 개인적 학습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교수와 수업만이 학생들의 학습에 가장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수와 수업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McKeachie & Svinicki, 2006). Lasley와 Matchzynski(1997)는 학생의 능동적 학습에 관해 “선생님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학습목표를 학생이 성취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그들의 자연스러운 학습방법을 수련하는 개인적 학습 기술과 접근을 획득하게 된다”(p.29)고 주장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학습은 단순히 학생들이 강의를 수강하는 수동적인 태도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 가장 큰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학습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한편, 가상강좌 평가내용 중 학습 과정이 3.80점으로 긍정적 평가이나 하부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상호 존경하는 학습 분위기가 3.69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습자 간의 개인적 차이에 대한 수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가상강의 특성상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와의 직접적 상호작용이 결여되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기 쉬운 반면(DeYoung, 2003), 학습자간의 개인적 견해의 차이에 대한 수용의 필요성이나 학습 분위기가 오프라인 강좌에서처럼 문제시 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본 강좌에서는 온라인 강좌에서의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과제를 부여하고 학습자간의 토론을 시행하고 독려하였

으며 그 결과 전반적으로 학습과정에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에 관해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였으나, 오프라인 강좌와는 달리 학습장면상에서 근본적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본 연구방법인 원시실험설계는 실험변수의 무작위 배치이나 대조군의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 사이의 실험처치 이외의 다른 영향은 없었는지에 관해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본 가상강좌에 대한 수강자의 긍정적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죽음교육이 대학생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가치체계와 죽음문화 체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본 강좌에서 개발된 교육내용을 근거로 모든 연령대와 대상자에게 유용한 죽음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죽음이 단순한 개별적 사건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라는 맥락 안에서 죽음을 공유하는 책임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다양한 죽음교육 프로그램의 개방과 적용이 시급하다. 죽음교육이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포함되어 전공 혹은 교양과정으로 개설되거나 재교육 혹은 단기 워크숍으로 많은 실무자들에게 제공되는 학점 외 교육과정 안에 하나의 단원이나 몇 차시 수업 정도로 편입되어 교육되는 것 등 보다 다양한 형식과 수준으로 광범위한 장면에서 제공되려면 모듈화된 교수학습 프로그램과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Hong(2002)은 사이버 시대의 가상경험을 직·간접 경험으로 활용하여 학습의 현실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학문 분야에서의 실제와 연구를 통한 지식들이 축적되고 적절히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사별과 비탄, 애도 등의 성공적인 극복과 조력을 위한 가상강좌 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풍부한 자료들이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되어진 죽음학 교육프로그램을 근거로 하여 ‘성공적인 삶과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를 개발하고 16주간 운영한 후 154명을 대상으로 죽음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도, 죽음에 대한 태도, 자기개념에 관해 가상강좌 전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마지막 강의에 가상강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성공적인 삶과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 전후의 죽음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도의 변화는 수강 전 2.62점에서 후 3.7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t=-14.232$ ,  $p<.001$ ), 죽음에 대한 이해( $t=-13.886$ ,  $p<.001$ ), 개인적 태도( $t=-11.113$ ,  $p<.001$ ), 호스피스와 지지( $t=-13.606$ ,  $p<.001$ ), 윤리적, 법적 이슈( $t=-$

-6.963,  $p < .001$ ), 죽음과 임사( $t = -14.170$ ,  $p < .001$ ), 영적이슈( $t = -10.308$ ,  $p < .001$ ), 문화적 차이( $t = -12.598$ ,  $p < .001$ ), 이론( $t = -4.402$ ,  $p < .001$ )에서 모두 수강 전보다 후에 인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상강좌 전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수강 전 3.48점에서 후 3.56점으로 긍정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며( $t = -3.892$ ,  $p < .001$ ),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t = -4.092$ ,  $p < .001$ )와 부정적 태도( $t = -4.043$ ,  $p < .001$ ) 모두 긍정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상강좌 전후의 자기개념에 대한 변화는 수강 전 2.95점에서 후 3.07점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이며( $t = -3.304$ ,  $p = .001$ ), 긍정적 자아개념( $t = -7.794$ ,  $p < .001$ )과 부정적 자아개념( $t = -3.076$ ,  $p < .01$ )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상강좌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학습내용은 3.98점, 학습과정은 3.80점, 학습전략은 3.99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3.93점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강좌에 대한 학습효과는 죽음과 관련된 지식축적과 더불어 죽음에 대한 인지도와 자아개념 및 죽음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학습내용과 학습전략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진 반면 학습과정의 하부요인인 상호존중의 학습환경은 다소 결여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온라인 학습상황의 갈등을 시사하고 있다. 웹을 활용한 본 강좌는 학습과정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 서로간의 협동적 활동을 권장하였으나 상대평가 체제에서 서로 경쟁하는 학습자들 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자료공개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갈등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평가에서 볼때 본 연구결과 ‘성공적인 삶과 아름다운 죽음’ 가상강좌 후 죽음관련 개념에 대한 인지도 및 죽음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아개념이 수강 전 보다 수강 후에 긍정적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상강좌에 대한 전반적 평가 또한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된 죽음학 가상강좌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죽음에 대한 가상강좌를 연령대에 따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대상자에 따른 적합한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본 가상강좌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실험그룹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그룹을 비교분석하여 그 효과성을 탐색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 본 연구에 적용된 죽음교육 운영을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해 가상강좌와 오프라인강좌를 동시에 실시하는 혼합학습(blended learning)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Braun, K. L., Pietsch, J. H., & Blanchette, P. L. (2000). *Cultural issues in end of life decision-making*. Thousand Oaks, CA: Sage.
- Chung, J. H. (2003). *Confronting: Meeting of death*. Seoul: Gungri.
- Chung, S. K. (1992). *A relational study of attitudes toward death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values of juveni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Coppola, K. M., & Strohmets, D. B. (2002). How is death and dying addressed in introductory psychology textbooks? *Death Stud*, 26, 689-699.
- Cicirelli, V. G. (2001). Personal meanings of death in older adults and young adults in relation to their fears of death. *Death Stud*, 25, 663-683.
- DeSpelder, L. A., & Strickland, A. L. (2002). *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 6th ed. Boston: McGraw-Hill co.
- DeYoung, S. (2003). *Teaching strategies for nurse educator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 Downe-Wamboldt, B., & Tamlyn, D. (1997). An international survey of death education trends in faculties of nursing and medicine. *Death Stud*, 21, 177-188.
- ELNEC (2000). *End-of-life nursing education consortium*.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of Nursing.
- Hong, H. J. (2002). The effectiveness of project method as a transformer from virtual and indirect experience to real and direct experience in knowledge-based society. *J Curriculum Stud*, 20(1), 155-182.
- Hur, S. (1999). Rethinking the meaning of teaching and learning: Making new school culture. *J Curriculum Stud*, 17(1), 31-43.
- Imogie, A. O. (2000). Health educators' assessment of the course content of a proposed death and dying education curriculum. *Res Educ*, 64, 56-63.
- Jo, K. H., Lee, H. J., & Lee, Y. J. (2006).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instrument for subjects related to death. *J Korean Acad Nurs*, 36(1), 74-83.
- Jeon, B. J. (1974).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self concept measurement. *Yonsei Nonchong*, 11, 107-130.
- Kao, S. F., & Lusk, B. (1997). Attitudes of Asian and American graduate nursing students towards death and dying. *Int J Nurs Stud*, 34(6), 438-443.
- Kim, B. H., & Choi, J. E. (2003). Evaluation of participation & management on the cyber hospice specialist program. *J Korean Acad Adult Nurs*, 15(1), 105-115.
- Kim, M. A., & Lim, S. H. (2002). A Q-study on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Keimyung J Nurs Sci*, 6(1), 43-54.
- Knowles, M. (1978). *The adult learner: The neglected species* (2nd ed.). Houston, TX: Gulf.
- Kramer, B. J. (1998). Preparing social workers for the inevitable: A preliminary investigation of a course on grief,

- death, and loss. *J Educ Soc Work*, 34(2), 211-229.
- Kubler-Ross, E. (1970). *On death and dying*. Tavistock: London.
- Lasley, T. J., & Matchzynski, T. J. (1997). *Strategies for teaching in a diverse society: Instructional models*. Belmont, CA: Wadsworth.
- Lee, K. S. (2001). A study of death experience. *J Korean Psychiatr Ment Health Nurs Acad Soc*, 10(3), 368-375.
- Lee, Y. J., Jo, K. H., & Lee, H. J. (2006). An exploration of death education model for high-touch major students, *Asian J Educ*, 7(3), 121-140.
- Mallory, J. L. (2003). The impact of a palliative care educational component on attitudes toward care of the dying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 Prof Nurs*, 19(5), 305-312.
- Matzo, M. L., Sherman, D. W., Lo, K., Egan, K., Grant, M., & Rhome, A. (2003). Strategies for teaching loss, grief, and bereavement. *Nurse Educ*, 28(2), 71-76.
- McKeachie, W. J., & Svinicki, M. (2006). *MxKeachie's teaching tips: Strategies, research, and theory for college and university teachers*.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Park, J. S., Kwon, Y., & Lee, H. (2006).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nline alternative therapy and health promotion class. *J Korean Acad Nurs*, 36(2), 286-298.
- Reed, P. (1987). Spirituality and well-being in terminally ill hospitalized adults. *Res Nurs Health*, 10, 335-344.
- Tyler, R. (1948). *The teaching of design in the school: Report addressed to the Minister of Public Instructuin and Ceremonies*. Government Publications: Washington, DC.
- Wass, H. (2003). A perspective on the current state of death education. *Death Stud*, 28, 289-308.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Online Education on Death\*

Jo, Kae-Hwa<sup>1)</sup> · Lee, Hyun Ji<sup>2)</sup> · Lee, Yun Ju<sup>3)</sup>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 Department of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online education on death, 'successful life, and beautiful death' for university students and to evaluate students' changes regarding perception of self and death. **Method:**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used with one experimental group pre-post test. Subjects were 154 students who enrolled for online education about death for 16 weeks. SPSS/WIN 12 was used for analyzing data. **Result:** The results of the study clearly indicated this class had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perception of death-related concepts, attitudes toward death, and self-concept,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scores in post-tests than in pre-tests. In addition, the result of class evaluations showed a positive response, **Conclusion:** Findings suggested that this online education about death was effective to change students' perceptions of death related knowledge, attitude toward death, and self-concept. Recommenda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provided.

**Key words :** Student, Death, Attitude, Education, Self concep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4-076-E00006)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Jo, Kae Hwa

Departmen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ung 4 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5 Fax: 82-53-621-4106 E-mail: jokw@cu.ac.kr